



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55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2년 5월 31일(화)

일가 31명 지방선거 당선! 축하드립니다.

기초단체장 5명, 시도의원 5명, 시군구의원 19명, 교육감 1명, 국회의원 1명
심문의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일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3면에 당선자 명단>

2022년 정기총회, 6월 15일 3년 만에 대면 개최

서울 성균관컨벤션에서...대중회, “일가분들의 적극 참여를”

청송심씨대중회(회장 심대평)는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성균관컨벤션웨딩홀에서 제70회 이사회를 열고, 제52회 정기총회를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1시 같은 장소인 성균관컨벤션웨딩홀 지하1층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이다. <정기총회 안건은 아래 정기총회 소집공고 참조>

이사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63명의 이사가 직접 참석했으며 미리 송부한 이사회 안건집을 검토하고 117명이 위임장을 보내 의결정족수를 채움으로써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였다.

또 제2회 한마음대회는 일가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집안의 큰 어른을 예우하는 문장(門長)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중회 임원회비는 내년부터 강제적 의미가 있는 ‘회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임원들이 장학금이나 종보 제작비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바뀌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회는 이에 앞서 5월 4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6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번 이사회에서 총회 공고문이 실린 5월 종보의 배달 기일이 촉박하여 일주일 늦춰 6월 15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예산안 등도 상정해 가결했다.



5월 19일에 열린 제70회 이사회

청송심씨대중회 제52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 ◆ 일시 : 2022년 6월 15일 (수) 오전 11시
- ◆ 장소 : 성균관컨벤션웨딩홀 지하 1층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 02-744-0677)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 ◆ 소집대상 : 청송심씨 성인(남·여) (지참물 : 신분증)

부의안건

- 1)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3) 대중회장 선출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소제기 및 수권결의 추인의 건
- 4) 문장(門長)제도 도입에 관한 건
- 5) 기타사항

2022년 5월 31일

- ◆ 소집자
청송심씨 연고항존인 심능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노가산길 177)
현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沈영감 심민섭



대중회는 5월 15일 <청송심씨대중회 50년사 1971~2021>를 발간했다. 이 책은 744쪽으로 2011년에 발간한 40년사를 보완해 서술했다. 6월 15일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일가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며

심응섭(순천향대 명예교수) ★

하늘의 별이 되다

기러기 떼가
지나간 빈 하늘을
보다가 문득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조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은
해와 달이 굽어보리라

고 공군 소령 심경민
훈련 도중 많은 민가 상공을 비껴
한 목숨 장렬하게 산화한 당신!

나는 지금
하얀 제비꽃이 되어
추모의 글을 적고 있다
꽃은 피었다 사라져도
그 향기 그리움으로 채워지듯
당신의 이름 하나 가슴 깊이
새겨 두고 싶다

그의 죽음 앞에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영결식에서의 애절함을
상기해 본다

한 생명 바친 숭고한 희생이
주민 모두의 화를 면하게
하지 않았는가?

바탕그림 심설아(남양주 진접고 2년)

구한말 소류 심성지 청송의병장 학술발표회 성황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청송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송 출신 소류 심성지(小流 沈誠之) 의병장의 생애와 학문을 조명하는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 학술발표회는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청송군, 소류선생기념사업회(회장 심능광)가 공동 후원했다. 행사장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기관단체장, 퇴계 선생 종손 이근필 씨, 풍산 류씨 종손 류상봉 씨 등 유림지도자, 유관단체 회원과 청송심씨 일가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술발표회는 1부 기념식, 2부 황만기 안동대 교수(퇴계학연구소 연구위원)와 권영배 대구대 교수의 주제 발표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황만기 교수는 “소류공은 학문적으로 서인 노론의 입장에 섰는데, 퇴계학파의 남인이 대세였던 지역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청송심씨의 보편적인 정치노선이자 학문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찬경루의 기문을 작성한 송시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영배 교수는 “1895년의 을

미사변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소류 심성지 의병장은 지역 유림의 추대로 창의장(의병장)에 올라 안덕면 감은리 전투 등지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조선 후기 유학자로서 일제 침략에 맞서 국난 극복에 앞장선 공적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성지 의병장은 호(號)가 소류(小流)이고 자(字)는 사행(士行)으로 1831년 12월 18일(순조 31년) 청송읍 논수동에서 출생했다. 11세 때 청송 향리 송와공(松窩公, 휘 禮之) 족형(族兄)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17세 때 둔와(遁窩) 유양흠(柳養欽)의 문하(門下)로 들어간 이후에 학행이 널리 알려졌다. 1888년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1894년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政)까지 올랐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의병 해산 후 노년에는 주로 산정(山亭)에 은거하면서 수십 명의 문하생과 함께 나랏일을 걱정하며 학문에 전념하다가 1904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래서 종종 ‘참 선비’의 표상으로 불린다.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했으며, 대표적인 유작(遺作)으로는 청송의진(靑松義陣)의 진중일기인 『적원일기(赤猿日記)』(공동 저작)와 『소류문집(小流文集)』 등이 있다.

(취재=심남규 종보 편집위원(청송), 심상헌 청송향토사연구 위원)



학술발표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강일호 성균관청년유도회 중앙회장, 심상희 이사, 심홍섭 약은공중회 부회장,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 이재업 유도회 경북본부장, 심완택 전 청송향교 전교, 심상철 이사, 김동섭 유도회 경북본부 부회장, 심동섭 대중회 부회장 겸 약은공중회장, 권영배 대구대 교수, 황만기 안동대 교수.

좋은 정치로 국민과 심문의 기대에 보답해 주세요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31명의 일가가 당선했습니다. 기초단체장 5명, 시도의원 5명, 시군구의원 19명, 교육감 1명, 국회의원 1명입니다. 이들중에는 심문의 남편, 아내, 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힘든 검증과정과 피말리는 선거를 통해 당선한 일가들의 영광을 심문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또 이들의 당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일가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당선자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과 심문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정치를 펼치길 기대합니다.

기초단체장(5명)

국회의원(1명)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남편 심재철)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심민
전북 임실군수



이인선
대구 수성구를 국회의원
(어머니 심현섭)

시도 의원(5명)

교육감(1명)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2)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서구4)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북구5)



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 일산서구11)



심영곤
강원도의원(삼척2)



임종식
경북교육감(아내 심귀순)

시군구 의원 (19명)



심재익
서울 강북구의원(다)



심우열
서울 강동구의원(마)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원(가)



심우창
인천 서구의원(바)



심상금
경기도 연천군의원(가)



심영미
강원도 원주시의원(아)



심창보
강원도 태백시의원(나)



심재섭
강원도 영월군의원(가)



심현정
강원도 평창군의원(나)



심의수
충남 당진시의원(라)



심완례
충남 예산군의원(비)



심부건
전북 완주군의원(다)



심민섭
전남 장성군의원(나)



심재연
경북 영주시의원(나)



심청보
경북 칠곡군의원(라)



심상휴
경북 청송군의원(가)



정미진
경북 청송군의원
(나, 남편 심부섭)



심영석
경남 창원시의원
(진해구 더)



신재향
경남 양산시의원
(라, 어머니 심영자)



임진왜란 때 선조와 광해군 잘 모셔 두 차례 ‘공신’의 영예

심충겸 할아버지, 형제 8분 이름에 모두 ‘겸손할 겸’ 자 넣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沈厚燮

아동문학가 · 대구문인협회장

보혜(輔憲)야, 만약 나라로부터 ‘공신(功臣)’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니?

우리 집안 11대 충겸(忠謙, 1545-1594)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 임금과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光海君)을 모시고 전쟁을 치러내, 두 차례나 공신에 오르셨어. 선조 임금을 모신 공로로는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시어 청림군(靑林君)에 봉해졌으며, 광해군과 함께 왜적을 물리친 공로로는 위성공신(衛聖功臣) 1등에 책록되시어 청림부원군(靑林府院君)으로 군호(君號)가 더 높아지셨어.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충익(忠翼)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으셨는데, 글씨도 잘 쓰고, 시문에도 뛰어났다고 하셔.

충겸 할아버지의 자(字)는 공직(公直), 호(號)는 사양당(四養堂)이야. ‘공직’이라는 자에는 ‘공공을 위해 바르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 같고, ‘사양당’이라는 호에는 ‘네 가치를 잘 기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 같은데, 그 네 가지는 선비가 꼭 마음에 품고 항상 지켜야 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아닐까.

충겸 할아버지의 증조부님은 사인(舍人) 벼슬을 지내신 순문(順門) 할아버지이시고, 할아버지는 영의정 연원(連源) 할아버지, 아버지는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강(綱) 할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인 이대(李薊)의 딸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이셔. 서인(西人)의 영수(領袖)인 의겸(義謙) 할아버지의 아우이며, 명종(明宗) 임금의 비(妃)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이시지. 또 중종(中宗)의 왕자 봉성군(鳳城君)의 사위였고, 인조(仁祖) 때 영의정을 지낸 열(悅) 할아버지의 생부(生父)이신데, 충겸 할아버지의 6대손이 경종(景宗)

의 비 단의왕후(端懿王后)이셔. 그러니 충겸 할아버지의 집안은 당시 조선 최고 명문이었던 거야.

충겸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재주가 뛰어나셔서 1564년(명종 1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시고, 1572년(선조 5)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셨어. 그러니 아주 수재(秀才)이셨던 거야. 급제 후 성균관의 관리인 전적(典籍)으로 등용된 뒤 호조와 병조의 좌랑을 거쳐 정언(正言)이 되셨어. 이어 수찬(修撰)과 직강(直講)을 거쳐 예조좌랑(禮曹佐郎)이 되셨어.

1575년 조정의 관리를 뽑는 중요 직책인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천거되었으나, 일찍이 형의겸 할아버지 때문에 이조정랑이 되지 못한 동인(東人) 김효원(金孝元)이 반대하여 등용되지는 못하셨어. 이 때문에 동서당쟁은 더욱 심해졌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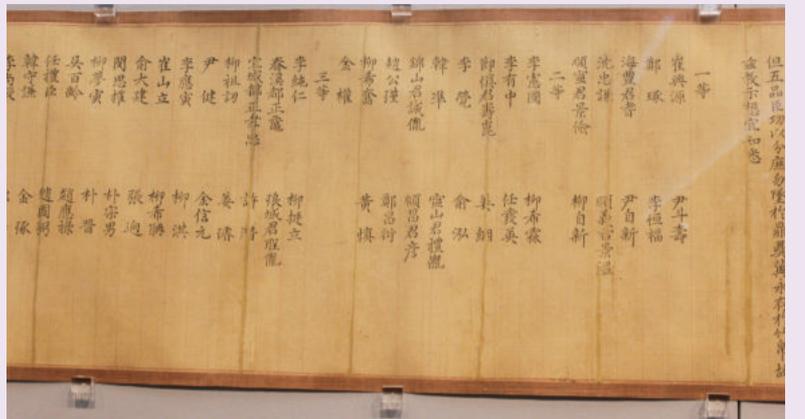
그 뒤 지평(持平), 교리(校理)를 거쳐 1578년에 헌납(獻納)이 되시고, 이어서 첨정(僉正), 사예(司藝),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이 되셨어. 1582년에 춘천부사, 1584년에 군자시(軍資寺)와 내섬시(內贍寺)의 정(正), 1588년에 여주목사, 호조참의, 병조참지, 1590년에 대사간, 형조참의, 이듬해 형조참관을 거쳐 부제학이 되셨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참관 겸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가 되어 선조를 호종하셨고, 세자 광해군을 호위하라는 명을 받아 왜적 방비에 힘쓰셨어. 1593년에 호조와 병조의 참판으로 군량미 조달에 공헌하셨으며, 이듬해 병조판서에 특진 되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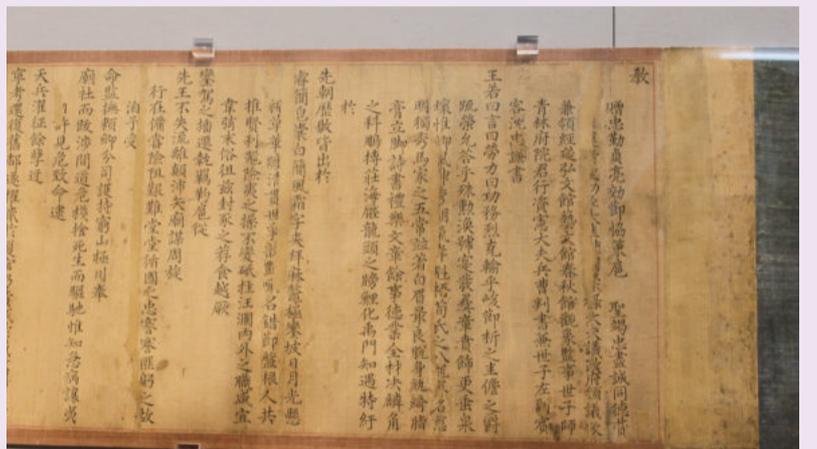
돌아가신 다음 1604년에 좌찬성, 대제학에 추증 되시고, 충익(忠翼)이라는 시호를 받으셨지. 지은 책으로는 『사양당집(四養堂集)』이 있어.

충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여덟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늘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름 끝에 모두 ‘겸손할 겸(謙)’을 넣으시고, 앞에는 차례대로 ‘인의예지신충효제(仁義禮智信忠孝悌)’를 붙이셨어. 일반적으로 ‘인의예지효제충신(仁義禮智孝悌忠信)’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의 순서를 약간 바꾸신 것 같아. 그것은 아마도 집안의 효도보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인지 충겸 할아버지가 남긴 시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衛聖功臣(1등급) 명단. 위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충겸 할아버지 이름이 보인다



충겸 할아버지의 공훈을 자세히 기록한 衛聖功臣 교지(국립진주박물관 소장)

送人佐幕巡邊¹⁾

- 변방으로 막부(幕府)를 보좌하러 가는 사람을 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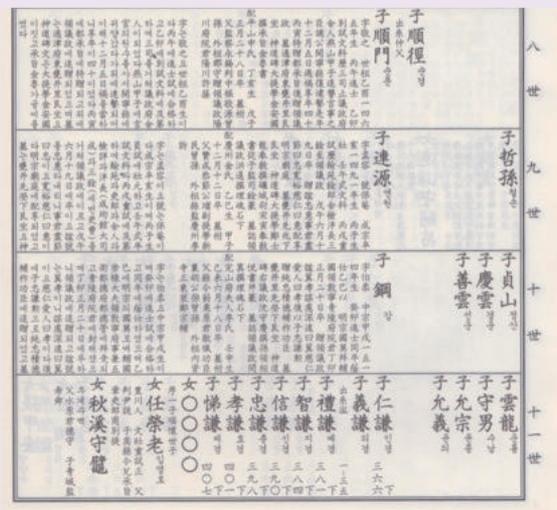
金沙寺裏暮鐘鳴 (금사사리모종명)
瘴海秋雲一望平 (장해추운일망평)
寂愛江山如活畫 (취애강산여활화)
阿郎浦口小舸橫 (아랑포구소도횡)

금사사(金沙寺)²⁾에 저녁 종소리 울려 퍼지는데 가을 구름 떠 있는 바다는 일망무제라. 아름답구나, 강산은 살아있는 그림이라! 아랑포(阿郎浦)³⁾의 어귀에 작은 배가 떠다니네.

군대에 나가는 사람을 보내며 읊은 시야. 그런데 마치 그림을 보는 듯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 이로 보면 충겸 할아버지는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문장도 빼어나움을 짐작할 수 있어.

그래, 우리도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아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1) 청송심씨대종회 발간(2006), 靑松沈氏世遺稿選 79쪽
2) 황해도 장연(長淵)에 있던 절 이름, 풍광이 아름다워 조선 시대 문인들이 많이 찾아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
3) 장연 바닷가의 포구 이름



충겸 할아버지 족보. 맨 아래 8형제 이름에 모두 ‘겸(謙)’자가 들어있다.

중의심장 - 노인중외를 맞이

부산에 살면 종파 불문하고 따뜻이 감사 안는 안식처

1945년 전국 최초 '沈門會'에 뿌리 둔 유서 깊은 종회...종회 회관 마련이 숙원



심재덕 부산종회 회장

1. 부산종회 발전사

부산종회는 전국 각지에서 부산에 이주한 청송 심씨 일가들의 친목 모임으로, 종파를 묻지 않는다. 뿌리는 1945년 해방 직후 전국 최초로 만든 '심문회(沈門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심씨화수회(沈氏花樹會)'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가 심두섭 선생께서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적도 있는데, 1967년 말부터 뜻있는 일가분들이 부산 서구 부민동의 옛 경남도청(현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의 진주집과 황록다방(사장 심점룡)에 모여 부산종친회(釜山宗親會)를 재결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1968년 5월 '재부 청송심씨 종친회(在釜靑松沈氏宗親會)'란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심양섭 일가가 제2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그해 10월 15일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972년 5월 15일, '재부 청송심씨 종친회'를 '재부 청송심씨 종중회'로 이름을 바꾸고 3대 회장에 심동구 남포극장 대표가 취임해 6년간 봉사했다. 또 1978년 4월 18일, 심상기 부산대병원 서무과장이 제4대 회장을 맡아 역시 6년간 종회를 이끌었다.

1981년 5월 1일, '재부 청송심씨 종중회'를 '청송 심씨 부산종중회'로 개칭했으며, 1983년 11월 6일 제5대 회장에 기업인인 심길구 일가가 취임해 10년간 수고했다.

1992년 5월 16일, '청송 심씨 부산종중회'를 '청송 심씨 부산종회'로 개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 10월 15일, 심재덕 송학제지 회장이 제6대 회장을 맡아 2005년 2월까지 10년간 봉사했고, 이후 2016년 5월까지 11년간 심상균 부산경영자총협회장이 제7대 회장을 지냈다.

2017년 3월 25일, 임원회의는 제8대 회장으로 심

재덕 고려일진대표를 추대했고, 심 회장은 같은 해 5월 20일 제 40차 정기총회에서 취임해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다.

2. 주요사업

부산종회는 평상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정진하고 있다.

- 1) 송조정신 고취
- 2) 회원간의 상호 친목과 번영 도모
- 3) 종묘, 유적보존 및 관리 및 순례행사, 일가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및 불우종인 돕기
- 4) 종중 재산의 수호, 관리
- 5) 청송심씨대종회와 유기적 관계유지 및 업무협조 등

3. 발전 과제

부산종회는 70년 넘게 모범적인 활동을 해 왔고, 현재는 청송회(부산종회 이사회 역할), 해심회(해운대거주 일가 모임), 심우회(청년회) 등 3대 소종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 재산이 없는 지역종회라는 특성상 월례비로 운영하고 있어 숙원사업인 종회 회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종회에서 대종회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고, 지역 종회에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른 종회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큰 고

민거리다.

(취재=심태섭 부산종회 총무, 심상보 부산종회 문화이사)

부산종회를 이끌어온 고마운 분들

40년 이상 부산종회를 이끌어온 일가분들은 이제 여든을 넘기셨지만, 종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큼은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다. 이분들의 공적을 종보에 남기고자 한다.

심일진, 심차섭 고문 : 부산종회 출범 때 20대의 젊은 경찰관으로 참여해 오늘날까지 헌신하고 있으며 부산경찰청 산하의 경찰서장, 과장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심인보 고문 : 부산종회 출범 때 젊은 학자로 부산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오늘날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심용보, 심용식 자문위원 등 : 40년 이상 부산종회를 지켜온 분들이다.

심상균 전 회장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제7대 회장을 지냈다. 회장 재직 시 매년 1천만 원의 종회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동분서주했으나 이루지 못한 종회 회관 마련이 그의 꿈이다. 심 전 회장은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에스피시스템스 대표로서 연 매출 1조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2월부터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심재덕 회장, 심태섭 총무이사 : 수십 년간 종회 총무 역할을 맡아온 부산종회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앞두고 2019년 7월에 열린 부산종회 월례회



왼쪽부터 심태섭 부산종회 총무, 심재덕 부산종회 회장, 심상억 대종회 문화이사, 심상보 부산종회 문화이사

장학생 소감문

심문의 미래, 국가의 동량...제4기 청심장학생 14명 선발

4월 16일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생들 “큰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이사장 심대평, 운영위원장 심오택)는 4월 16일 제4기 장학생으로 선발한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심문의 미래이자 국가의 동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호에는 6명의 소감을 실는다.

심우중

고려대 생명공학부 3년



의료분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최고 권위자를 향하여

저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청심장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문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재목을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청심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더욱 영광입니다.

집안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족들도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해 주셨고, 제 주변에서도 심씨 문중은 장학회까지 운영하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칭찬해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이라는 제 전공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라는 최근 대세를 접목해 의료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권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의료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 인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청심장학회의 지원은 제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주리라 확신합니다. 학업에 더욱 열중해서 제 목표도 달성하고 가문도 빛냄으로써 장학회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송유진

상명대 그린화학공학과 2년



심문의 외손으로 받은 장학금이라 더 자랑스러워

장학금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선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다녀온 후 청심장학회의 장학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장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 알게 되면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심문의 외손으로서 이러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의 추천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청심장학회를 알게 되고, 훌륭한 지원자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청심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훌륭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 심문과 국가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수

고려대 경제학과 1년



세대간 조화에도 신경 쓰는 인물로 성장하고 싶다

먼저 학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송 심문에서 손을 내밀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심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명절 때면 산소에서 “여기는 누구누구의 묘고, 이분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셨어”라고 구수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뵈며 청심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면접에서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심의 어른들이 세대와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느꼈고, 세대간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청심장학회의 지원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심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어른이 되어야 하겠다는 동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소감문

“나만이 아닌,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는 인재가 되겠다”

심지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 경제학과 3년



공동체정신 구현하는 법조인 꿈 이루는데 자신감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사람이 되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되지 말거라.”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불어 사는 삶과 세대 간의 공존 방식인 효(孝)를 강조하는 청심장학회를 만나면서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나 아동, 동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저의 꿈은 청심장학회가 내세우는 공동체정신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권력과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심장학회의 이념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이한주

순천향대 생명공학 박사과정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환경보호를 위한 꿈 더 단단히

처음은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청심장학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곧 지원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정말 오랜만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저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런 꿈과 의지를 서류와 면접을 통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우리 집안에 멋진 사람이 많다는 것도 확인하고 자부심도 더 높아졌습니다.

청심장학회는 인문이나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 특히 공동체정신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학생 중에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적은 것은 아쉬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장학금의 존재를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서류 준비가 만만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심윤재

카이스트 기술경영 석사과정



청송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청심장학생은 더 큰 영예

청송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로서는 청송 심씨를 대표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 더욱 자랑스롭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장학회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으로부터 당부 말씀을 들으며, 장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 제도는 장학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방(항공우주) 분야의 기

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경영 과정을 공부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장학생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성장해 갈 우리 장학생들이 본인만이 아니라, 청송 심씨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송 심씨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인재가 되어 우리 가문의 이름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생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개인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하겠습니다.

“내가 쓴 글이 실리면 아들들도 뿌리에 관심이 생기겠죠?”

친정 엄마와 남편이 심 씨인 김용주 씨가 특별기고를 하게 된 사연

청송 심씨와 이중의 인연을 맺고 사는 김용주입니다. 친정 엄마는 청송 심씨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금순 여사(77·26세손)이고, 남편도 청송 심씨로 3대 독자인 석진 씨(51·24세손)입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엄마와 남편이 청송 심씨라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요.

저의 분신 재운(22·대학 1년)이는 전공이 콘트라베이스 연주이고, 재빈(18·고교 2년)이는 경기도청



김영주 씨의 가족사진. 위 왼쪽부터 본인, 장남 심재운, 남편 고 심석진, 아래 차남 심재빈 씨.(김영주 씨 제공)

의 축구 유학생으로서 축구 선수 정대세의 고향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팍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0여년간 남편과 함께 ‘심석진의 황소야 양념소갈비살’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혼자 꾸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213-5번지의 팔탄 본점은 직영하고 있고, 수원 오목천동지점은 체인점입니다. 수원대점, 아산점, 오산점에는 양념소갈비살을 납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송 심씨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엄마로서, 아들 형제에게 뿌리교육을 시키는 게 막막했습니다. 우연히 저희 가게에 들른 심재섭 우리종회 회장님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부터 ‘청송심씨중보’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송신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했



김영주 씨가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게를 찾은 일가들. 왼쪽부터 심재섭 (췌)우리 회장, 심석진의 황소야 대표 김영주 씨,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한섭 (췌)우리 부사장, 심영희 행사기획대표, 심재성 중보편집위원.

으나 시큰둥합니다. (ㅎㅎ)

우리 가족 이야기가 종보에 실리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특별기고’ 제의를 수락했더니 대종회 어른들이 방문해 여러모로 도와주십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먼 곳까지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가기업 탐방—광주광역시의 (주)파레스관광호텔

신의·겸손·창의... 光州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존경받아

심재규 회장, 파레스관광호텔과 영화관 운영하며 사회공헌으로 다수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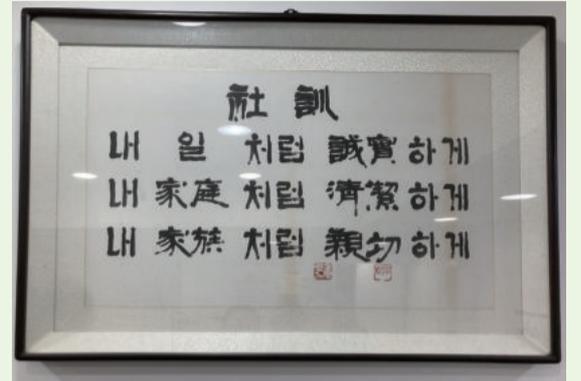


심재규 회장

임했다. 또 1995~96년 광주로타리 클럽 회장, 2009~10년 국제로타리 3710 지구 총재를 역임한 후,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제로타리 3710지구 회관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세계 최고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에 25만 달러(한화 3억 원)를 기부해 국제로타리재단에서 최고 후원자로 예우하는 아치 클럽프 소사이어티 멤버(AKS)가 되었으며, 2019년 5월에는 국제로타리재단에서 초아(超我)의 봉사상까지 수상했다. 또 노동부장관상, 국세청장상, 대한민국 경우회 회장상, 자랑스러운 북성인상, 광고인대상, 한국JC특우회 존경받는 선배상도 수상했다.

2. 경영철학

파레스관광호텔의 사훈은 '내 일처럼 성실하게' '내 가정처럼 청결하게'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이다. 이 사훈을 통해 파레스관광호텔이 고



파레스관광호텔 사훈

객 만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고객을 한번 왔다 가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마치 가족에게처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광주를 찾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심 회장은 심문을 위한 장학금도 꾸준히 쾌척하면서, 특히 2013년부터 광주청광회를 이끌어오는 등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심문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 청송심씨대종회 부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청송심문의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취재=심재한 정보편집위원〉

심재규 회장은 (주)파레스관광호텔 회장, 롯데시네마 광주충장로관 회장, (주)대성운수, (합)무등산택주 등을 운영하며 '문화 관광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1966년 운천주조장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13(황금동)에 파레스관광호텔을 세웠고, 광주의 중심에 있던 제일극장을 개축해 신개념의 롯데시네마 충장로관을 열었다. '무등산 택주'는 광주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까지 자리잡았다. 봉사단체인 JC(청년회의소)와 로터리클럽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대종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1. '심탱크'로 불리는 추진력

심재규 회장은 의리와 책임감이 남다르며, 사소한 약속이라도 철저히 지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또 어떤 모임에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모든 일에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의 지질 줄 모르는 노력과 독심에 놀라면서, 꿈을 현실로 바꾸어놓는 그를 '심탱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심 회장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경영인이자, 인내와 신념까지 갖춘 지역 원로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좌우명은 '신의'를 중시하고, 매사에 '겸손'하며, 새로움을 창조하는 '창의' 정신이다.

심 회장은 기업 경영 외에 1967년 광주JC에 입회해 74년 광주JC 15대 회장, 77년 전남지구JC 8대 회장, 81년 한국JC 상임부회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JC특우회 장학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2004년 한국JC특우회 중앙회장도 역



파레스관광호텔 입구



왼쪽부터 심재윤 송암총회 회장, 심재한 정보 편집위원, 심재규 회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갑섭 이사, 심상선 롯데시네마 대표이사(재규 회장 차남)

청송심문사람들 - 이런일 저런일

심경호

고려대 명예교수,
제63회 3·1문화상(3월 1일)



심상형

우리카드 부사장
(4월 1일)



심상만

전북지방정우회장
(4월 27일)



심형섭

세종대 교수

제38회 국제연소심포지움
최우수논문상(5월 2일)



악은공종회 정기총회 (4월25일)



고문 심우영



고문 심의철



회장 심동섭

상임부회장 심홍섭
부회장 심전택 심성보
심재화
감 사 심광섭 심재상
총 무 심장섭

도예명문 沈壽官家 424년 만에 직계 선조 찾아...
7월 9일 김포 선영 역사적 참배



심대평 대총회장과 심재갑 곡산공종회장이 15대 심수관에게 곡산공파보를 전달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인 1598년 전라남도 남원에서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간 심당길(아명, 본명은 沈讚)과 그 후손은 430여년 동안 '沈'이라는 성씨를 지켜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도예가문으로 성장했다. 그 후손인 15대 심수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방한했다. 15대 심수관은 14대 심수관에 이어 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일하고 있다.

심대평 대총회장과 심재갑 곡산공종회장은 5월 8일 15대 심수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심중식 청심회장, 심규선 증보편집장, 심상억 대총회 문화이사가 배석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그동안 설왕설래가 있던 심수관가의 뿌리가 확인됐다. 일본에 끌려온 심당길의 본

명이 '심찬'이라고 했다는 심수관가의 구전(口傳)과 곡산공파의 파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심당길은 곡산공 심수(沈鏗)의 아들이자 도사공인 심우인(沈友仁)의 아들이라는 것. 이에 따라 15대 심수관은 당길 어른이 일본으로 끌려온 지 424년 만에 7월 9일 경기도 김포 약산에 있는 우인 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기로 했다. 우인 할아버지의 묘소는 후손들의 정성으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기까지는 심재금 전 김포한강 신희본점 이사장, 심창선 곡산공종회 총무, 심효섭 이사, 심재성 청송심씨수찬공종회 총무이사 등 많은분의 도움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15대 심수관. 5월 10일 취임식 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인수부윤공종회 정기총회 (4월 23일)



명예회장 심정구

부 회 장 심종혁, 심재석, 심규화
총무이사 심창보
감사 심춘식



신임회장 심재구

이경공종회 정기총회 (3월 26일)



신임회장 심상인

부회장 심봉섭, 심재민
총 무 심춘섭
재 무 심재권

2022년 상반기 인사

<우리은행> (3월 27일자)
◇집행부행장보 ▲부동산금융그룹 심기우

<BNK금융그룹> (3월 27일자)
◇BNK경남은행 ▲부행장(투자금융그룹 투자금융지원본부) 심중철

<과학기술인공제회> (4월 17일자)
◇승진 ▲연금사업실장 심기욱

<강원도> (4월 20일자)
◇승진·전보 ▲글로벌투자통상국 일본구미주통상과(일본 dots 리현 파견) 심미애 ▲심상훈 녹색국 산림소득과(승진)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과(복직) 심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5월 1일자)
◇수석연구원 승진 ▲심승보

<기초과학연구원> (5월 1일자)
◇실장 ▲커뮤니케이션실 심시보 시설건설실 심영대

<연합뉴스TV> (5월 1일자)
◇전보 ▲경영기획부장 심병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심가현 심규덕 심규현 심주형 심지영 심태섭 심현희 심형보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정기총회 (3월 26일)



신임회장 심광석

이사 심성태
감사 심정석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임직원 일동

신천공종회 정기총회 (5월14일)



신임회장 심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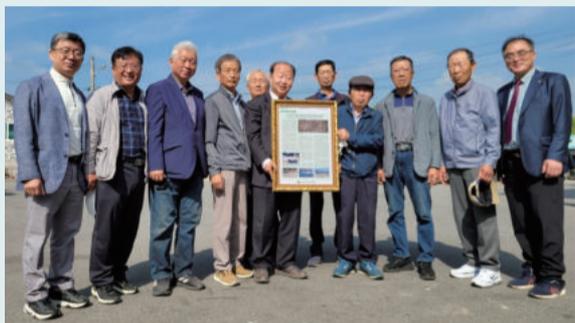
고문 심윤섭 심재필
심상달 심상헌
부회장 심상홍 심학섭
총무이사 심웅섭

대중회·지역총회 활동 이모저모

회장단 회의(5월 4일)



만우공중회를 보도한 중보 제154호 기념액자 전달(4월 23일, 경북 청송)



왼쪽부터 심상헌 청송향토사연구소 위원, 심종래 선조사적연구위원, 심상벽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상목 이사, 심후택 이사,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택 이사,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 심상복 시조초소 유사, 심상철 이사, 심준섭 경운대 교수

청수회 운영위원회(4월 26일, 경기도 안성)



앞줄 왼쪽부터 심창섭 감사, 심관섭 신임 부회장, 심정행 위원, 심학섭 회장, 심영철 자문단장, 심경진 위원, 심국향 제주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심윤보 위원, 심홍보 경남위원장, 심철구 위원, 심봉섭 대구위원장, 심명보 울산위원장, 심진섭 경기위원장, 심성식 광주·전남 위원장, 심재중 위원, 심재철 서울위원장, 심기영 위원

4세조 청성백(휘 德符) 묘소 주변 잡목 제거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4세조 청성백(휘 德符) 할아버지의 묘소와 재실이 있는 미산면 아미리 산110 일대의 잡목을 제거했다.

대중회는 2021년 9월 24일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회(위원장 심재득), 심노진 용인중회 회장, 심덕보 연천군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과 연천군수를 예방해 묘소 주변의 정리를 요청한 바 있다.

청송 보광산 시조 묘소 진입로 석축공사 확정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시조 문립랑공(휘 洪孚)의 보광산 묘소 진입로를 돌로 쌓는 공사를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대중회가 보물인 보광사 극락전과 경북유형문화재인 만세루 등이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지 않도록 청송군청을 수차례 방문해 건의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보광사의 무구 주지 스님의 역할이 컸다.

‘청송심씨중보’ 편집위원회 (4월 7일)



앞줄 왼쪽부터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대평 중보 발행인(대중회 회장), 심재철 전 고려대 언론대학원 원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뒷줄 왼쪽부터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종래 전 LH 강원본부장, 심재성 전 광명시 국장, 심상벽 청송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후섭 대구문인협회 회장

안동 ‘沈판서 묘소’ 현장답사(4월 23일)



왼쪽부터 심상헌 청송향토사연구소 위원, 심상벽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종래 선조사적연구위원

청보산악회 시산제 (4월 3일, 남한산성)



청보산악회(회장 심종혁)는 청송심문의 송조돈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2008년 1월 1일 창단해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서울과 경기 일원의 명산과 유적지를 탐방하고 있다. 매년 3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산제를 병행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4월 3일에 남한산성 산기슭에서 시산제를 모시고 둘레길을 산행했다.

군산시, 진포대첩 안내문 교체해 청성백 할아버지 업적 바르게 기술

전북 군산시는 ‘진포대첩’(1380년, 고려 우왕 6년)을 승리로 이끈 4세조 청성백(휘 德符) 할아버지의 공적을 잘못 기술한 금강시민공원 내 진포대첩기념비 안내문을 수정해 달라는 대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내문을 새로 만들어 게시했다.

진포대첩의 도원수는 심덕부, 상원수는 나세, 부원수는 최무선으로 덕부 할아버지가 최고사령관이었다. 그런데도 교체하기 전의 안내문에는 최무선이 심덕부와 나세를 지휘한 것처럼 되어 있다. 새로 만든 안내문은 당시 직책이 순서대로 잘 표기되어 있다.

이번에 잘못을 바로잡게 된 것은 수년 동안 전북 군산의 좌승지공파임피종회 심수영 회장, 심상엽 형제분, 심재웅 사장 등이 노력했고, 대중회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회(위원장 심재득)와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의 지원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 금강시민공원(전북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77)에 있는 ‘진포대첩기념비’ (위)와 새로 만들어 게시한 ‘진포대첩기념비’ 설명문

광주두암총회를 보도한 중보 152호 기념액자 전달(4월 19일, 광주광역시)



왼쪽부터 심윤섭 광주금당산총회 회장, 심민섭 금당산총회 총무,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현섭 두암총회 회장, 심재평 두암총회 총무, 심재윤 송암총회 회장 (사진=광주 심갑섭)

청송 소헌공원 발전방안 협의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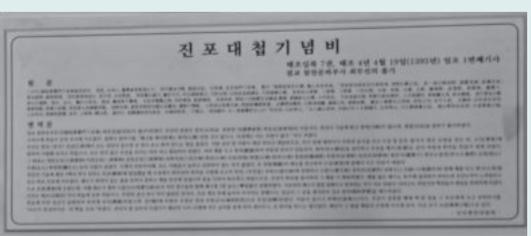


왼쪽부터 심종래 선조사적연구위원, 심수 청송군 문화재계장, 심상벽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상헌 청송향토사연구소 위원, 이정희 청송읍 부읍장,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상택 동부 산림청장 취임 축하 (2월 11일, 강릉)



왼쪽부터 심종래 중보 편집위원, 심상택 산림청장, 심상익 대중회 대외협력실장



전국 곳곳에서 춘향제

“선조님이시여, 새봄 인사받으시고 후손들을 돌보소서”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청송 보광산(4월 6일)

2세조 합문지후공(휘 淵)·익산 남당산(4월 11일)



초헌관 청송 심상철, 아헌관 청주 심상호, 심학보, 종헌관 산청 심진섭, 인천 심재석, 축관 청송 심은섭, 집례 청송 심홍섭



초헌관 심대평 대종회 회장, 아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종헌관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임실) 축관 군산 심수영, 집례 심언태 대종회 총무이사

2세조 합문지후공(휘 淵) 두산정 안분사·합천(4월 5일)

3세조 청화부원군(휘 龍)·안성 재실(4월 13일)

4세조 청성백 정안공(휘 德符)·연천 아미리(4월 15일)



초헌관 산청 심용태, 아헌관 심한섭, 종헌관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종회 회장, 축관 함안 심진식, 집례 심동섭 악은공종회장



초헌관 심대평 대종회 회장, 아헌관 심복섭, 종헌관 청주 심명연, 축관 김포 심양섭, 집례 심언태 대종회 총무이사



초헌관 심상현 도총제공종회 회장, 아헌관 심종혁 대종회 감사, 종헌관 심원보, 축관 김포 심재성, 집례 심언태 대종회 총무이사

4세조 청성백(휘 德符) 배위 청주송씨·청주(4월 17일)

4세 악은공(휘 元符), 5세 영동정공(휘 天淵), 6세 석촌공(휘 孝尙) 3대 춘향제 봉행·경의재(4월 25일)

6세조 양혜공(4월 20일)



초헌관 심상호 청주 회장, 아헌관 심재웅, 종헌관 심관섭(임실), 도총제공배위 춘향 초헌관 심상현 도총제공종회 회장, 아헌관 청주 심규택, 종헌관 심규익, 축관 대전 철용, 집례 심언태 대종회 총무이사



4세조 악은공 춘향 초헌관 심재대 악은공 대종손, 아헌관 심증영(의령), 심상철(청송), 종헌관 심훈(대구종회장), 심상익(대종회 문화이사), 5세조 영동정공 춘향 초헌관 심상국(청송), 아헌관 심경환(진주), 종헌관 심상목(청송), 6세조 석촌공 춘향 초헌관 심순택(청송), 아헌관 심재화(진주), 종헌관 심상욱 등 많은 일가분이 참가했다. 축관 함안 심진식, 집례 청송 심홍섭



초헌관 심규형, 아헌관 심종복, 종헌관 심우관, 축관 심종혁 인수부윤공종회 감사, 집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7세조 망세정공(4월 23일)

좌승지공파임피종회 총회 및 춘향제(4월 1일)

세종대왕 572주기 영릉제향(4월 8일)



초헌관 심찬구, 아헌관 심명섭, 종헌관 심규화, 축관 심종혁 인수부윤공종회 감사, 집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임피종회는 심수영 회장, 심방섭 부회장 겸 재무이사, 심재관 총무이사, 심윤보, 심영석 감사 등이 이끌어가고 있다.



아헌관은 심규정 청송심씨 대종회 재무이사가 봉행했다.

소헌왕후 576주기 영릉제향(4월 28일)

구한말 영의정 심순택 평택 묘소 사초축(4월 20일)



아헌관은 심우섭 청송심씨안효공종회 이사가 봉행했다.



왼쪽부터 심재만 전 화성시 국장, 심규정 대종회 재무이사, 심규익 직계 후손, 심규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총무, 심언태 대종회 총무이사,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회장, 심재득 13상신승조사업 위원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영의정 심순택 영정

각 찬조 2022.3.22~2022.5.21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중회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2월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3월



심정보

풍덕공파중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3월



심충택

공속공중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3월



심상국

봉익대부공중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3월



임성호

청심장학회 이사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3월



심대평

대중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2년4월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중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2년4월



심행진

강서공파지평중회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4월



심재진

청송악은공 이사

추향헌성금 70만원 2022년4월

금지사항

청송심씨종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 심문(沈門)의 소식정보지입니다. 대중회는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직접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 장학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19세 이상 종원과 여성 종원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 1. 현재 청송심씨대중회는 5000-6000여명의 종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연 6회(1,3,5,7,9,11월) 발간되는 종보를 발간하여 종중의 각종 대소사를 알리고 회의 소집 통보를 하는 등 종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인구조사 결과로는 전국에 약20만 명의 청송 심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나 대중회에서는 종보, 홈페이지, 족보 수단접수, 파종회와 지역중회 등을 통해 종원들의 연락처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왔음에도 증감 변동하는 종원수가 5000-6000명을 넘지 못하였으며, 특히 여성 종원들의 연락처는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청송심씨대중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만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종원으로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중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어 종원으로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기사를 보신 종원들께서는 가족이나 주변에 19세 이상에 도달하신 일가분이나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여성 일가들에게 대중회에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중회 연락처 :
전화: 02-2267-7857 팩스: 02-2269-7755
메일: set217@naver.com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2022년 5월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임원회비

- 이사회비(21년분) 5만원
심홍섭(청송) 심국택(서울) 심정식(광주) 심종덕(계림동) 심규종(구미)
심우홍(강릉) 심광석(구미) 심충현(대구) 심광보(괴산군) 심재훈(청주)
심원식(서울) 심상호(청주) 심규익(대전) 심상배(대구) 심화섭(경기)
심원섭(인천) 심준보(서울)
■ 부회장회비('22년분) 30만원
심능광(청송) 심충택(서울) 심상국(철원) 심상우(광주) 심동섭(진주)
심재구(서울)
■ 이사회비(22년분) 5만원
심상대(용인) 심상복(청송) 심훈섭(청송) 심동섭(철원) 심상규(철원)
심상환(서울) 심종홍(경기) 심춘식(서울) 심일섭(대전) 심규선(대전)
심종식(광주) 심수영(전주) 심기섭(서울) 심상환(서울) 심철우(안성)
심봉섭(서울) 심인섭(서울) 심재춘(서울옥인) 심정보(서울) 심광보(용인)
심재복(청주) 심명연(청주) 심재룡(청주) 심종복(서울) 심주택(경기)
심종택(군포시) 심장섭(청송) 심재득(서울) 심재문(안양) 심재윤(광주)
심훈(대구) 심동석(대전) 심철용(대전) 심우식(경기) 심재근(김포)
심강섭(김포) 심원보(김포) 심상진(인천)

장학찬조

- 300만원 심대평(이사장) 오산사복시정공파중회(회장 익섭)
200만원 강서공파지평중회(회장 심행진)
100만원 임성호
30만원 용인중회(회장 노진)
3만원 심재희
2만원 심준호(청송)

기사정정- 제152호

임원회비 형찬(김포)→ 형무(인천)

2022년도 안효공파 정기총회 서면결의 및 단오절사 안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2022년 4월 21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서면결의 총회'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면결의 총회는 일가들의 건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고, 부의 안전에 대한 '서면결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단오절사는 집행부에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서면결의 절차 및 방법

- 1. 정기총회(서면결의)자료 검토
2. 서면결의서 작성(동의·부동의에 "O" 표기)
3. 서면결의서 제출

(총회자료에 동봉한 회신 봉투 이용)

제출기간 : 2022.6.3.(금) ~ 2022.6.17(금)

청송심씨안효공파중회 회장 심무섭

추향 헌성금 내역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2022 donation drive.

종보찬조

- 210만원 영신푸드(주차장)
100만원 공속공중회(회장 심충택)
50만원 봉익대부공중회(회장 심상국)
30만원 심능광(청송)
20만원 심홍섭
10만원 논산악은모중회 영신푸드(주차장) 심재강(의정부)
6만원 심연춘(수원) 심재진 심기섭
5만원 심강채(전남)
5만원 심철우(안성) 심재익 심종우(부산) 심종선(서울)
3만원 심재형 심상목 심상훈 심수택
3만원 심강채(전남) 심강채(전남) 심강섭(김포) 심재길
2만원 심상길 심상래 심재찬 심재영 심재상
1만원 심정구 심관수 심한석
1만원 심수복 심재영 무명 심상호(대전) 심우호 심우현 심미란
심외생 심재식 심승하 심종택(평택) 심만식